

**법구경**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지혜롭게 다스려 가라.

현대불교@상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익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원도:상판식, 복사, 복장익식, 명기전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상부 요가  
02-956-2460

얼레과일 푸리아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 뜨거워지는 조계종 '선거바람'

청정선거 요구 한 목소리... 토론회 요청·모니터링 선언도



청정선거대중결사, 재가연대, 대불청, 불교여성개발원, 경불련 등 10개 불교단체들은 9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10월 22일)를 2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며 공정선거를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량회·무자회·보림회·화엄회 등 조계종 중앙종회 4대 종책모임 의원 70여 명 등으로 구성된 '자승 스님 추대위원회'는 9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교구본사 주지 19명 등 30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후보로 前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추대했다.

선각 스님, 추대사는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이 각각 맡았다. 자승 스님은 추대 수락사를 통해 "종단발전을 위해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라는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종회의원직을 사퇴할 것도 밝혔다. 자승 스님의 출마 선언을 전후해 각 예비후보군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원로의원 종하 스님은 9월 7일 가장 먼저 출마표를 던져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법주사 북곡암 주지 각명 스님은 15일, 백련암 회주 대우 스님은 22일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9월 24일 자승 스님 승적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승 스님 경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원로의원 월서 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남 스님은 장교를 거둬들여 추석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도 전화통화에서 "가만 놔두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각 후보군의 움직임과 동시에 '청정선거'에 대한 불교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정선거대중결사(의장 진오)와 '불교지도자넷'(운영위원 법응)은 자승 스님 추대식에 앞선 9월 26일과 28일 각각 성명을 통해 '집단·공개적 과시행동은 갈등의 불씨' "4대 종책모임과 19개 본사 주지들이 특정스님을 지지하는 행동은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종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숙)도 29일 "자승 스님 추대식에 참여한 19

개 교구본사 주지의 교구중회 당연직 의장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며 30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에 공문을 접수했다. 또 청정선거대중결사, 참여불교 재가연대, 불교여성개발원 등 불교계 10개 단체들은 9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인단 선출 교구중회 일정(10월 7~11일)과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 사부대중의 요구는 한결같다. 공정하고 청정한 선거를 통해 한국불교를 위해 발벗고 뛰어줄 '참일꾼'을 뽑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총무원장을 뽑는 행사를 넘어 향후 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될 까닭에 '청정선거'를 향한 열망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노덕환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추진위 발족

조조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아 2011년 개최될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이끌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경남도(도지사 김태호)는 9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을 비롯해 김태호 경남도지사, 심의조 합천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 문화 관련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2011년 9월 23일~11월 6일 합천 해인사 등 가야면 일대에서 대장경 천년축전을 개최해 대장경을 한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 영산재 세계무형유산 등재 될 듯 문화재청, "본의회 등재 확실시" 밝혀

불교종합공연예술인 영산재(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가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이진무)은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위원회에서 영산재를 비롯해 강강수월래와 남사당놀이, 처용무, 제주침머리, 영등굿 등 5건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여부가 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들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위원회 사전 자문회의에서 등재 권고를 받아 본의회에서 등재

가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무형유산은 76개국 166건으로 한국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건이 등재돼 있다. 이번에 5건이 추가 등재되면 한국은 8건의 세계무형유산 보유국이 된다. 한편, 영산재(靈山齋)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했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불교의식이다. 불교의식의 백미로 손꼽히는 영산재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로 지정 후 태고종을 중심으로 보존·전승돼 왔고,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활발히 추진돼 왔다. 조동섭 기자

**금주의 Hot**

 여산 스님 12선지식	 정산 스님 14복지	 박성배 08학술
---	--	--

**영봉(해중) 스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ikey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해중) 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안내**

11월 6일(금)~20일(금) 15일 : 일 시 ●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리아-빈달-마일 : 코 스 ●  
리-볼블레-Pikey 베이스캠프-Pikey 정상-준베 시-빈달-시발리아-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인 원 ●  
287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참 가 비 ●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입 금 계 좌 ●  
10월 20일(화) : 접 수 마 감 ●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사전설명회 ●  
02-2004-8233, 017-236-5769 입연대 부국장 : 문 의 ●  
033-647-8848 영봉스님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해중)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불교중흥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청하옵니다. - 정책을 제안해 주십시오.

## 사부대중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gongsa2009@hanmail.net](mailto:gongsa2009@hanmail.net)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은 종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의 기틀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종도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청하옵니다. 대중공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대중공사(大衆公事)에 종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604호 전화 : 02)723-9341, 팩스 : 02)723-9342, 이메일 : gongsa2009@hanmail.net